
• 지원자님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진실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진실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장난스러운 말로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예의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어떤 사건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끈끈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껴 좌우명으로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위트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상황과 느낌 등을 진실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진심을 이해하고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호주의 문화와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하루에 20 시간씩 일하며 생활비와 학원비를 번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약 1 년간의 호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낮에는 타일러로 야간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영어학원비를 벌었습니다. 이후 영어를 배우면서 외국인을 대하는 자신감도 생겼으며 호주뿐만 아니라 서양문화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생각하는 것에는 크게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자신 있는 일도 찾았기에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개발자에게 있어 뚜렷한 목표의식은 저의 강점입니다

• 어떤 계기로 개발자를 꿈꾸게 되었나요?

신입 개발자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보다는 가고 싶었던 학교를 선택해 원했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했으며 대학교 졸업 후 해저케이블 공사 회사에서 약 3 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저를 보고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던 프로그래밍에 도전해보고 싶어 일을 그만두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개발자로서 일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전공, 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수중 건설 회사에서 3 년 정도 일을 하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주된 일이 통신 케이블 수중 설치였는데 아직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작업하고 나면 뿌듯함도 있었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과보다는 대학을 선택했던 순간이 생각났으며 아직까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웹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봤을 때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어떤 기능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웹입니다. 최근에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키오스크 보급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젊은 층 말고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스마트폰은 잘 다루지만 키오스크를 처음 봤을 때는 거부감이 들고 제대로 사용하기를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몇몇 소수의 매장에서는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복작업만 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많은 경험과 많은 시도를 통해 그런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고 어떤 것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웹을 만들고 싶습니다.

• 본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 잘하고 싶어서 참여했던 교육이나 시도했던 경험을 적어주세요.

원티드 채용 플랫폼에서 진행한 'Pre-Onboarding Course'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입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알고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Codestates'라는 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React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구현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정하여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과제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프로젝트 8개와 개인 프로젝트 1개를 개인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협업이라 생각합니다. 독학을 했었기에 협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git을 add push만 하는 저장소 정도로만 사용했었는데, 내가 짠 코드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기존의 코드나 다른 팀원들의 코드가 충돌이 어떻게 해야 충돌이 안 나게 하는지 등 git을 이용한 개발자들의 협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주에 2개의 기업 과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2~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한 기업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업에서 필수 사용 스택 등을 과제로 주어지거나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한 달 동안 이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될지 하는 기대감마저 생겼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활용하며 새로운 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자신감까지 생겨 짧지만 제가 독학한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